



생림북카페, 면 생리대 만들기 수업

김해시 생림북카페는 지난달 28일 (사)김해여성의 전화에서 주관하는 '면 생리대 만들기' 수업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업은 평소 생림북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리대의 역사, 일회용 생리대의 진실 등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정보와 면 생리대 사용방법 및 보관,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상수기자

김해시 생림북카페, '면 생리대 만들기'수업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지난 28일 생림북카페는 (사)김해여성의 전화에서

주관하는 '면 생리대 만들기'수업을 가졌다.

이번 수업은 평소 생림북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한 20여명의 주민은 사춘기 여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다.

생리대의 역사, 일회용 생리대의 진실 등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와 면 생리대 사용방법 및 보관, 마지막으로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끝으로 이날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수업은 평소 궁금했던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환경과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시간이 되었다.

생림면 작은도서관 '생림북카페'는 2012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눔과 소통의 문화공간이다. 진대엽 생림면장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생림북카페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